

아동의 자기-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한국아동과 미국아동을 대상으로*

A Study on Children's Self-Perception and Daily Hassels :
Compare with American and Korean Children*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이영환

우송정보대학 가정관리과
조교수 한종혜

대전대학교 이과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박성옥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 Yee, Young-Hwan

Dept. of Home Management, Woosong Information College
Assistant Prof. : Han, Jong-Hye

Dept. of Home Management, Taejeon University
Associate Prof. : Park, Sung-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In this study, we compared how different the self-perception and the daily hassels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The subjects were 706 fifth and seventh grade students. Data were obtained by administrating a questionnaire.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cale(SPPC) and stress scale.

1. All the SPPC factors for Korean childre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for American children. The SPPC factors for American children didn'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ades. But for Korean children seventh graders showed significantly lower SPPC than fifth graders.
2.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predict the global self-worth was physical appearance for boys and girls.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1997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실시되었음

Self perception for physical appearance is more influential factor than scholastic competence to form the positive self-perception for both boys and girls.

3. The daily hassels for Korean childr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American children. Also daily hassels for seventh grad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fifth graders.
4. Daily hassels global self worth correlated negatively. When the level of stress was increased, the global self-worth was decreased.

I. 서론

자아개념 모형과 측정에 있어서 단일차원적인 것과 다차원적인 것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 Harter(1985)는 아동의 자아를 측정함에 있어서 구체적 하위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독립적으로 측정하였다. Harter의 아동용 자기-지각 척도는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하위 영역의 합으로서가 아니라 별도의 개념이면서 이들과 상관을 지니는 개념이다. 즉 아동이 모든 자기개념의 하위 차원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Harter(1985)는 서로 다른 차원을 각각 평가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전반적 자아가치는 각 차원의 합과는 별도로 상위 개념으로 구성하여,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좋아하는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자아개념의 모형과 측정에 있어서 다차원성과 위계성을 강조한 것이다(이영환·박성욱·한중해, 1997).

여러 영역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아동의 자기-지각은 행동과 학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자신을 역량있는 존재로 지각하면,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환경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의 자기-지각 발달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은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 문화에 따라 아동의 자기-지각의 경향은 다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아동의 자기-지각은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였지만 경험적으로 이를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성인뿐 아니고 아

동에게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은 성장 발달 과정에서 많은 적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로의 전환 시기는 학습에 대한 주위의 기대감과 성취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성인과는 다른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또한 이 시기는 발달과정상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신체 및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서, 중요한 생활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사건에 의해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사실 일상적 스트레스는 중요 생활사건에 비해 별로 극적이지는 않지만 더 보편적이며, 인지적 평가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고, 적응에 있어서 더 중요하며, 건강을 더 잘 예측해 준다(Lazarus & Folkman, 1984).

아동이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적응을 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대처능력 중의 하나는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지, 즉 자기-지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 요소가 된다. 자기-지각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에 대해 문제지향적으로 대처하고, 자기-지각이 낮은 아동은 정서지향적으로 대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Harter, Donna & Marold(1991)는 여러 유형의 경로 모형 분석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아동의 정서 및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박성욱, 한중해, 이영환(1997)도 아동의 자아가치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다고 보고했다.

아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자기-지각을 발달시키게 되며, 또한 아동이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 역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지각과 스트

레스의 연구에서 아동발달에 따른 보편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과 미국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자기-지각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1.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2.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3.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과의 관계는 아동의 성과 학년,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향은 어떠한가?

- 2-1.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2.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자기-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의 자기-지각

아동의 자아개념은 인지능력 발달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기능력 지각에 관한 발달적 변화는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걸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Bensen과 Dweck(1986)은 아동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아개념이 낮아진다고 주장했으며 이주리(1994)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올라 갈수록 인지, 신체, 사회의 세 영역 모두에 걸쳐 역량 지각의 점수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에 따른

자기-지각의 변화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김치영(1987)은 운동과 행동·품행 영역에서, 공인숙(1989)은 인지적 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에서, 전경숙(1996)은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낮았다고 보고했다. 박성옥 등(1996), 이진화·전경숙(1995)은 학업과 신체·외모,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점수가 낮았다. 강민주(1993)도 사회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에 따라 감소했으며 특히 학업, 전반적 자아가치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영역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지각의 성차에 관한 분석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지만 그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과 신체외모 영역의 자기-지각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 Harter(1985)는 운동 영역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했으며 후속 연구들(한중혜, 1996; 이진화·전경숙, 1995; Stigler·Smith·Mao, 1985; 배기조, 1992; 김치영, 1987)이 이를 지지한다. 신체·외모 지각도 남아가 여자보다 높다(한중혜, 1996; 이주리·유안진, 1991; 이주리, 1994; 박성옥 등, 1996; 이진화·전경숙, 1995; 김치영, 1987; 공인숙, 1989; Neglon-Colon, 1990). 둘째,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도는 성차가 없다(강민주, 1993; 공인숙, 1989; 김치영, 1987; 이주리·유안진, 1991; 한중혜, 1994; Cause, 1987; Stigler et al, 1985). 셋째, 전반적 자아가치는 남아가 여자보다 높거나(Harter, 1985; Stigler 등, 1985; Neglon-Colon, 1990), 성차가 없다(공인숙, 1989; 김치영, 1987; Cause, 1987)고 보고한다. 넷째,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 지각 점수가 낮은 영역은 행동·품행 영역(Harter, 1985; 배기조, 1992)이다.

한편 Harter의 척도가 위계적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에서의 능력이 전반적 자아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초등학교 4, 6학년 대상으로 연구한 공인숙(1989) 연구에서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예측하는 순서는 인지(.45), 사회(.39), 신체(.30) 순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5, 6학

년과 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영애(1995)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예측하는 순서는 신체(.49), 학업(.46), 사회적 수용(.43), 행동 품행(.36), 운동(.33) 영역의 순이었다. 이영환 등(1997)에서도 전반적인 자아가치와 상관관계가 높은 하위영역은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 외모, 행동 품행, 학업 역량 순이었다. 중학교 역시 신체 외모가 전반적 자아가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던 사회적 수용과 우정 영역이 중학생의 전반적 자아가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역량과 운동영역도 전반적인 자아가치와 .20, .21의 상관을 보였다.

2.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은 크게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환경과 개인의 특정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간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개인의 자원을 요구하거나 개인이 소유한 자원의 양을 넘어서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안녕이 위협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Dubow와 Tisak(1989)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는 주요한 스트레스 유발요인이라고 주장한다. Rowlison과 Felner(1988)는 주요한 생활 사건과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를 동시에 측정된 결과 주요생활사건과 적응과는 상관관계가 낮은 반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거의 모든 변량을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DeLongis, Coyne, Dakof, Folkman과 Lazarus(1982), Kanner, Coyne, Schaefer와 Lazarus(1981)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의 스트레스, 또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중요 생활사건보다 심리적 또는 생리적 변인을 더 잘 예측한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문제거리는 중요 생활사건에 비해 별로 극적이지는 않지만 더 보편적이며, 인지적 평가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고, 적응에 있어서 더 중요하

며, 건강을 더 잘 예측해 준다(Lazarus & Folkman, 1984).

Blom, Cheney, Snoddy(1986)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원인별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이 경험하는 87가지 스트레스 사건 중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69항목으로 정신적 경험, 건강·외모, 물리적 환경에 비해 대단히 많다고 밝혔다. Sorensen(1993)은 7-11세의 42명 아동이 작성한 스트레스 일지를 분석하여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상황·자아·타인 등 3 영역, 16개 범주로 묶었다.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류수영, 1993; 신은영·김경언, 1996; 천민필, 1993; 최창호, 1993; 한미현, 1996 등)가 증가하였다.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 한미현, 유안진(1995)은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 등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금수 등(1997)은 한국과 미국아동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한 결과 학교 환경이나 학업 등 학교관련 문제,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갈등, 대인관계, 자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주변환경 등이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린 아동의 대인관계는 부모와 가족이 주를 이루지만, 성장하면서 대인관계가 넓어짐에 따라 스트레스의 근원도 많아지며, 아동의 환경이 이웃과 학교를 포함하게 되면 아동의 스트레스는 또래 및 교사와 같은 가족 이외의 성인이 관련된다.

3. 아동의 자기-지각과 스트레스 관계

자기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가능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처를 잘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반대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지각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할 뿐 아니라 우울증 및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킨다(박정희, 1989). Harter는 아동의 자기가치감은 정서적 상태와 동기적 상태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며 다시 정서적 반응이 자기의 동기나 행

동을 증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Harter(1991)는 경로 모형 분석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전반적 자아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아동의 정서 및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McGee와 Anderson(1986)도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수준이 자기존중감과 부적인 상관성이 있으며, 또한 학업능력에 대한 자가지각과도 부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아가치감이 높은 아동은 부모관계와 교우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김경자, 1994; 최명구·김경자, 1995), 흥미와 활기가 있지만, 자아가치감이 낮을수록 또래보다 활기가 없고 기운이 없다(한중혜, 1994). 한중혜 등(1997)의 연구에서도 남·여아 모두 자아가치감과 부모관련 스트레스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연구대상 아동은 미국과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으로 <표 1>과 같다. 미국의 경우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자우편을 통해 학교장과 접촉하여 연구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질문지 전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¹⁾. 한국의 조사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문화	한국		미국	
		N	%	N	%
성	남 아	176	49.9	134	50.4
	여 아	177	50.1	132	49.6
학년	초등 5학년	197	55.8	184	67.2
	중1학년	156	44.2	90	32.8

2. 조사도구

아동의 자기-지각은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이영환 등 번안, 1997)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역량, 사회적 수용도, 운동역량, 신체·외모, 행동·품행과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개 영역, 각 영역 6개 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Cranbach's α 는 .73, .83, .85, .89, .73, .74였다.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지금수 등(1997)이 미국과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개발한 스트레스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관련 스트레스, 가족관련 스트레스, 자아관련 스트레스, 대인관계관련 스트레스(각 영역 12문항),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6문항) 등 5개 영역 총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73, .83, .85, .89, .73이다.

IV. 연구 결과

1. 아동의 자기-지각 일반적 경향

아동의 자기-지각이 문화, 성별,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3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기-지각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으며,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주효과는 자기-지각의 하위영역에 따라 달랐다. 또한 자기-지각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문화와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성·문화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행동·품행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없었으며, 성·학년 간의 상호작용과 성·학년·문화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기 지각 비교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학업, 운동, 신체·외

1) 미국의 경우 자료수집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대학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California, Chicago, New York에 소재한 초등학교(5학년)와 중학교(7학년) 세 학교의 도움을 받았다. 미국의 연구대상과 사회경제적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표 2〉 아동의 성, 학년, 문화에 따른 자기-지각 3원변량표

자기지각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값
학업역량	성	3.11	1	3.11	8.00**
	학 년	19.99	1	19.99	51.41***
	국 가	23.60	1	23.60	60.72***
	성 X 학년	2.04	1	2.04	5.25*
	성 X 문화	.02	1	.02	.04
	학년 X 문화	11.06	1	11.06	28.44****
	Residual	228.98	589	.39	
	total	294.02	596		
사회적 수용도	성	.164	1	.16	.44
	학 년	2.09	1	2.09	5.55*
	국 가	16.40	1	16.40	43.48****
	성 X 학년	.00	1	.00	.01
	성 X 문화	.01	1	.01	.03
	학년 X 문화	2.44	1	2.44	6.46*
	Residual	223.96	594	.38	
	total	246.40	601		
운동역량	성	16.22	1	16.22	31.12****
	학 년	1.25	1	1.25	2.39
	국 가	8.93	1	8.93	17.14****
	성 X 학년	.22	1	.22	.42
	성 X 문화	.37	1	.37	.71
	학년 X 문화	6.54	1	6.54	12.56****
	성X학년X문화	1.51	1	1.51	2.89
	Residual	308.53	592	.52	
total	344.66	599			
신체·외모	성	9.79	1	9.79	20.40****
	학 년	30.55	1	30.55	63.63****
	국 가	16.76	1	16.76	34.91****
	성 X 학년	.77	1	.77	1.61
	성 X 문화	.55	1	.55	1.15
	학년 X 문화	6.91	1	6.91	14.39****
	성X학년X문화	.14	1	.14	.29
	Residual	282.77	589	.48	
total	353.29	596			
행동·품행	성	.46	1	.46	1.56
	학 년	.58	1	.58	1.94
	국 가	39.71	1	39.71	134.01****
	성 X 학년	.29	1	.29	.98
	성 X 문화	1.59	1	1.59	5.37*
	학년 X 문화	4.54	1	4.54	15.33****
	성X학년X문화	.03	1	.03	.11
	Residual	174.85	590	.30	
total	223.24	597			
전반적 자아가치감	성	2.65	1	2.65	8.55**
	학 년	11.95	1	11.95	38.52****
	국 가	32.24	1	32.24	93.88****
	성 X 학년	.01	1	.01	.02
	성 X 문화	.03	1	.03	.11
	학년 X 문화	12.55	1	12.55	40.44****
	성X학년X문화	.01	1	.01	.03
	Residual	183.72	592	.31	
total	247.90	599			

* p< .05 ** p<.01 *** p<.001 **** p<.0001

〈표 3〉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자기-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자기-지각 하위 영역	성 별		학 년		문 화	
	남 자 평 균 (표준편차)	여 자 평 균 (표준편차)	초등5학년 평 균 (표준편차)	중 1학년 평 균 (표준편차)	미 국 평 균 (표준편차)	한 국 평 균 (표준편차)
학업역량	284(.67)	269(.72)	293(.62)	251(.75)	293(.62)	251(.75)
사회적수용도	279(.65)	275(.63)	284(.65)	268(.64)	284(.65)	268(.64)
운동역량	291(.73)	257(.75)	279(.75)	266(.77)	279(.75)	266(.77)
신체·외모	268(.73)	241(.78)	275(.71)	224(.77)	275(.71)	224(.77)
행동·품행	268(.59)	273(.63)	276(.59)	264(.65)	276(.59)	264(.65)
전반적자아가치감	297(.61)	283(.66)	304(.57)	269(.70)	304(.57)	269(.70)

〈 〉 안의 영역은 주효과가 있는 영역)

〈표 4〉 학년에 따른 한국아동과 미국 아동의 자기-지각 차이

구분 자기-지각 하위 영역	한 국		미 국	
	초등 5학년 평균(표준편차)	중학교 1학년 평균(표준편차)	초등 5학년 평균(표준편차)	중학교 1학년 평균(표준편차)
학업역량	284(.56)	223(.58)	303(.67)	299(.75)
사회적수용도	272(.62)	249(.55)	297(.65)	299(.65)
운동역량	275(.78)	246(.71)	283(.71)	299(.76)
신체·외모	266(.70)	200(.63)	285(.70)	263(.82)
행동·품행	257(.50)	235(.46)	297(.62)	310(.65)
전반적자아가치감	292(.57)	237(.55)	317(.54)	322(.58)

모,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감 영역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수용과 행동·품행 영역에서는 남녀 아동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 볼 때, 운동과 행동·품행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아동과 중학교 아동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학업, 사회적 수용, 신체·외모,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감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중학교 아동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2) 문화에 따른 아동의 자기-지각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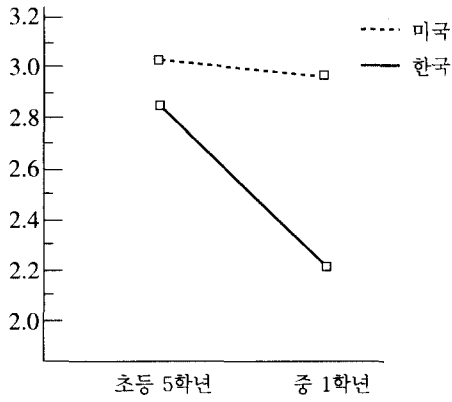
아동의 자기-지각은 문화에 따른 주효과와 문화·학년의 상호작용 효과가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이를 좀더 분석하기 위해 자기-지각의 각 하위영역별 평균을 학년과 문화별로 비교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아동의 자기-지각은 모든 하

위 영역에서 한국 아동이 미국 아동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학년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면, 한국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때보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자기-지각 점수가 6개 하위영역에서 모두 낮아지는 반면, 미국 아동의 경우는 신체·외모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5학년과 7학년 사이에 변화가 없었다(표 4와 그림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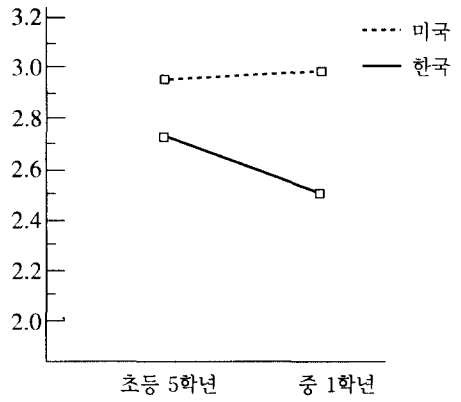
한편 성과 문화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행동·품행 영역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행동·품행 영역에서의 점수는 한국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미국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낮았다($t = -2.33, p < .05$)

3) 전반적 자아가치와 하위영역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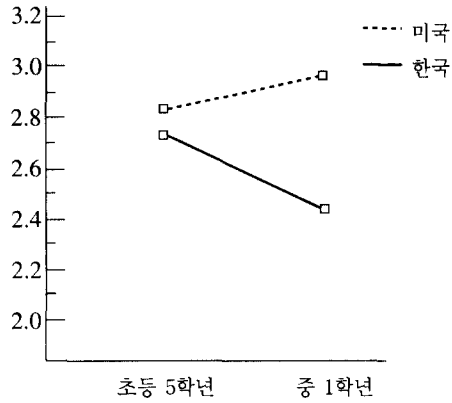
자기-지각의 하위영역이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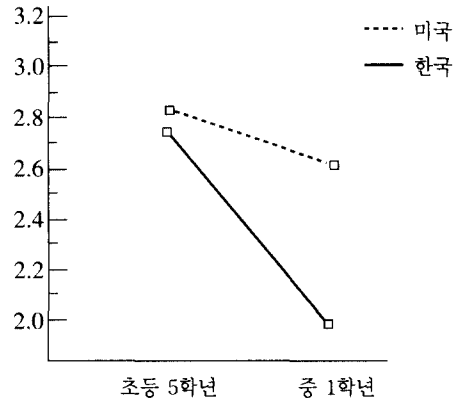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역량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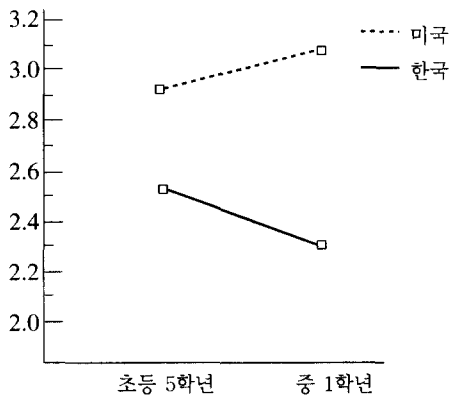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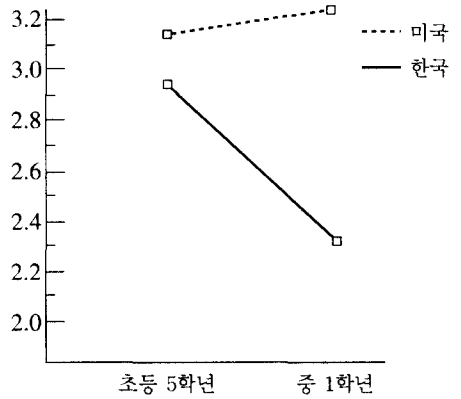
<그림 3> 운동역량



<그림 4> 신체·외모



<그림 5> 행동·품행



<그림 6> 전반적 자아가치

〈표 5〉 자기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상관관계

자기지각	초등5	중 1생	남	녀	한국	미국
학업역량	.39****	.65****	.56****	.54****	.53****	.46****
사회적 수용도	.40****	.50****	.54****	.37****	.32****	.49****
운동역량	.28****	.35****	.34****	.27****	.18**	.41****
신체·외모	.53****	.61****	.63****	.57****	.54****	.60****
행동·품행	.41****	.62****	.51****	.54****	.44****	.42****

던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학년별, 성별, 문화별로 자기-지각 하위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감과의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표 5 참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5학년보다 중학교 시기에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 자아가치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신체·외모 영역에서의 지각이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중학생의 경우는 학업역량이 전반적 자기 지각을 가장 잘 예측하며, 행동·품행, 그리고 신체·외모 영역도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둘째, 남녀 아동 모두 신체·외모 영역에서의 자기-지각이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역량과 사회적 수용도, 그리고 운동 역량 순이었다.

셋째, 한국아동의 경우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신체·외모영역에서의 자기지각과 .54, 학업역량과 .53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 두 영역이 전반적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 아동이 지각하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행동·품행영역과는 .44, 사회적 수용도와는 .32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 미국아동의 경우는 다른 영역보다 신체·외모 영역에서의 지각 점수가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가장 높은 높은 상관(.60)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수용도(.49), 학업역량(.46), 행동·품행(.42)의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운동역량의 경우 미국 아동은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41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아동의 경우는 운동영역에서의 자기지각이 전반적 자아가치와 .18의 상관을 보여 예측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2.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문화, 성별,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스트레스에서는 학년과 문화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으며 성별, 학년, 문화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영역별로 볼 때 학업과 자아 관련 스트레스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 대인관계, 주변환경관련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자아 관련 스트레스 영역에서만 주효과가 있었다. 또한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1)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비교

〈표 6〉과 〈표 7〉에서 보듯이 전체 스트레스에서 남녀 아동간에 차이가 없으며, 영역별로 볼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영역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학년별 차이를 보면 중학교 1학년 아동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보다 전체적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는 학교관련 스트레스와 자아관련 스트레스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더 높기 때문에 기인한다.

2) 문화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비교

문화별로 보면 한국아동은 미국 아동에 비해 전체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영역별로는 자아, 다른사람과의 관계, 주변환경 영역에서 유의한

〈표 6〉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삼원변량분석(성*학년*문화)

스트레스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학교	성	.42	1	.42	1.67
	학년	7.29	1	7.29	29.08****
	국가	.52	1	.52	2.09
	성 X 학년	.04	1	.04	.15
	성 X 문화	.18	1	.18	.73
	학년 X 문화	.66	1	.66	2.61
	Residual	144.88	578	.25	
	total	154.92	585		
가족	성	.22	1	.22	.55
	학년	.80	1	.80	2.02
	국가	.66	1	.66	1.66
	성 X 학년	.00	1	.00	.01
	성 X 문화	.28	1	.28	.71
	학년 X 문화	.01	1	.01	.02
	성X학년X문화	.38	1	.38	.95
	Residual	234.41	591	.40	
total	236.93	598			
자신	성	1.97	1	1.97	4.86*
	학년	2.23	1	2.23	5.50*
	국가	19.01	1	19.01	46.91****
	성 X 학년	.02	1	.02	.04
	성 X 문화	.00	1	.00	.01
	학년 X 문화	.57	1	.57	1.39
	성X학년X문화	1.98	1	1.98	4.88*
	Residual	241.51	596	.41	
total	268.98	603			
타인	성	.08	1	.08	.16
	학년	.28	1	.28	.56
	국가	39.86	1	39.86	79.73****
	성 X 학년	.14	1	.14	.27
	성 X 문화	.76	1	.76	1.51
	학년 X 문화	.33	1	.33	.65
	성X학년X문화	.37	1	.37	.73
	Residual	295.47	591	.50	
total	336.88	598			
주변환경	성	.45	1	.45	1.15
	학년	.31	1	.31	.78
	국가	18.56	1	18.56	46.82****
	성 X 학년	.34	1	.34	.86
	성 X 문화	.10	1	.10	.26
	학년 X 문화	4.09	1	4.09	10.31****
	성X학년X문화	.04	1	.04	.11
	Residual	240.61	607	.40	
total	265.18	614			
전체	성	.14	1	.14	.56
	학년	1.13	1	1.13	4.48*
	국가	9.49	1	9.49	37.63****
	성 X 학년	.21	1	.21	.82
	성 X 문화	.65	1	.65	2.58
	학년 X 문화	.18	1	.18	.72
	성X학년X문화	.45	1	.45	1.79
	Residual	137.89	547	.25	
total	150.72	554			

*p<.05 **p<.01 ***p<.001 ****p<.0001

〈표 7〉 아동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국 가		학 년		성 별	
	한 국	미 국	초등5학년	중 1학년	남 자	여 자
학교관련스트레스	2.41(.51)	2.32(.52)	2.28(.53)	2.51(.45)	2.35(.50)	2.40(.53)
가족관련스트레스	2.40(.59)	2.33(.68)	2.34(.63)	2.42(.63)	2.39(.61)	2.35(.65)
자아관련스트레스	2.37(.63)	1.98(.67)	2.14(.70)	2.30(.61)	2.15(.67)	2.27(.67)
타인관련스트레스	2.54(.71)	2.00(.71)	2.30(.81)	2.32(.67)	2.33(.74)	2.31(.76)
주변환경스트레스	2.27(.66)	1.91(.60)	2.08(.67)	2.17(.63)	2.09(.65)	2.14(.67)
전체스트레스	2.40(.50)	2.12(.52)	2.24(.55)	2.36(.47)	2.28(.51)	2.31(.54)

〈 안의 영역은 주효과가 있는 영역〉

〈표 8〉 아동의 자기-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스트레스	학 교	가 족	자 신	대 인관 계	주 변환 경
자기-지각					
학업역량	-.34****	-.14***	-.27****	-.14***	-.27****
사회적수용도	-.21****	-.16****	-.28****	-.16****	-.22****
운동역량	-.18****	-.12**	-.20****	-.10**	-.13****
신체·외모	-.32****	-.23****	-.43****	-.19****	-.22****
행동·품행	-.26****	-.23****	-.28****	-.26****	-.23****
전반적자아가치감	-.32****	-.21****	-.41****	-.24****	-.26****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한국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에 비해 중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반면 (t=2.42, p<.01), 미국아동의 경우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행영역에서의 자기-지각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다른 하위영역보다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영역과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체외모에서의 자기지각은 자신관련 스트레스와 가장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독립된 영역으로 하여 자기지각의 5개 하위영역과 스트레스의 5개 하위영

3. 아동의 자기-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의 자기-지각과 일상적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표 8〉에서 보듯이 각 하위영역간에 자기-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을 보여, 아동이 자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역량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다른 영역보다 학교관련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업역량 이외의 다른 하위영역, 즉 사회적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행동품

〈표 9〉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			
	B	β	R ²	F값
신체외모	.26	.32****	.53	57.47****
학업역량	.21	.23****		
행동품행	.22	.21****		
사회적 수용도	.12	.13****		
자신관련 스트레스	-.11	-.11*		
상수	.83			

*p<.05 **p<.01 ***p<.001 ****p<.0001

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 보듯이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동의 신체외모에 지각이며, 그 다음은 학업역량, 행동품행, 사회적 수용도, 그리고 자신에 관련된 스트레스요인이었다. 이들 5개 요인은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53% 설명하였다.

V. 논의

아동의 자기-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비교문화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한국아동이 미국아동에 비해 자기-지각의 모든 하위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학년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의 경우 신체·외모 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다른 영역에서는 자기지각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모든 하위 영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비해 중학교 아동이 자기를 낮게 지각하였다. 즉 미국아동은 학년이 높아져도 자기-지각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한국아동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기를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발달과정상 중학교 1학년때의 자기-지각 점수가 가장 낮아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서심리가 발달과정상 가장 불안한 시기가 된다고 주장한 이영환(1997)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경우 자기-지각 하위영역 중 학업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감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업이 아동의 자아형성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운동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상관성은 한국의 경우 .18이나 미국의 경우 .41의 유의한 상관을 보여 학교활동에서 운동이 중요시되는 미국과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셋째, 한국아동이 미국아동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영역별로 볼 때 한국아동은 미국아동에 비해 자아, 다른사람과의 관계, 주변환경 영역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선행연구(지금수 등, 1997)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 영역별로 보면 학교관련 스트레스와 자아관련 스트레스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 아동은 학업에 대한 가중되는 압력과 함께 자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인해 학교관련 스트레스와 자아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단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미국아동은 학년에 다른 차이가 없으나, 한국아동은 중학교 아동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걸어서 통학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네째, 본 연구에서 한국아동이 미국아동에 비해 자기지각이 낮고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점, 특히 여아가 남아에 비해서 학업역량, 운동역량, 신체외모,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으며,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정서발달에 교육적 관심이 크게 요구된다. 자기-지각의 중요 영역인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우울을 예측한다(곽금주·김근영, 1997; 한중혜, 1994)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학교 여학생에게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요인은 신체·외모 영역에서의 자기-지각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현대에 사는 남녀아동 모두,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학업역량을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의 자아개념보다 신체외모에 대한 자아개념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에 문제되는 일부 여학생의 무리한 다이어트 문제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많은 여학생이 저체중 또는 빈혈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문보도는 '객관적 사

실' 보다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주관적 이미지'가 본인의 정서에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춘기에 이르는 여학생이 개별적으로 자신있는 교과목 또는 운동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학업역량과 운동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또는 자신의 신체·외모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자신의 가치있는 점을 발견하는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삶의 과정에서 스트레스 없는 생활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아동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의 자기-지각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특히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에 대한 개념은 사회 문화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 역시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한다. 본 연구는 비교문화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사춘기를 겪는 아동의 정서발달의 보편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 석사논문.
- 2) 김경자(1994). 아동의 자기 역량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교육대 석사논문.
- 3)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대 석사논문.
- 4) 류수영(1993). 국민학교 고학년용 생활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 5) 박성옥·이영환·한종혜(1996).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지지 및 역량 지각과 스트레스.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3, 83-108.
- 6) 박정희(1989). 아동의 우울성향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7) 배기조(1992). 아동의 역량에 대한 과대, 과소평가와 사회 정서 지각. 경북대 석사논문.
- 8) 신은영·김경언(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4호, 33-47
- 9) 이영환·박성옥·한종혜.(1997). 외국척도의 국내연구적용에 있어서 문제점: Harter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지 창간호, 155-171.
- 10) 이영환, 박성옥, 한종혜(1997). 자기-지각의 발달적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5호.
- 11) 이주리·유안진(1991). 가정 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131-144
- 12)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 박사논문
- 13) 이진화·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권 6호, 225-244.
- 14) 지금수, 이영환, 박성옥, 한종혜(1997). 한국과 미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권 6호.
- 15) 천민필(1993).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16) 최창호(1993).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 17) 최명구, 김경자.(1995). 아동의 자기 역량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제 13호, 한양대 학생 생활 상담 연구소.
- 18)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박사논문.
- 19) 한미현·유안진(1995).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4호, 49-64
- 20) 한종혜(1994). 아버지와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아동의 자기 역량 지각 및 우울성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 연구, Vol.1, No.1, 85-99.
- 21)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

- 량지가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 박사논문.
- 22) 한중혜, 박성옥, 이영환 (1997). 친구, 가족, 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가치감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 제 6권 1호, 15-27.
- 23) Benenson, J. & Dweck, C. (1986). The development of trait expectation and self-evaluation in the academic and social domains. *Child Development*, 57, 1197-1187.
- 24) Blom, G. E., Cheney, B. D., Snoddy, J. E. (1986). *Stress in Childhood*. Teacher's College Press, U.S.A.
- 25) Cause, A. M. (1987). School and peer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a test of domain specific self perceived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87-291.
- 26)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 (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136.
- 27)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28)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29) Harter, S., & Donna B. Marold. (1991). A Model of the Determinants and Mediation Role of Self-Worth: Implication for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Jaine Strauss George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Springer-Verlag, NY, 66-92.
- 30)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s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 31)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 Y.: Springer Publishing.
- 32) McGee, R. O., & Anderson, J. C., Williams, W. & Silva, W. (1986). Cognitive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in 11-year ol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517-524.
- 33) Negron-Colon, Lillian.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environment and self perception of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34) Rowlison, R. T., & Felner, R. D. (1983).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3), 432-444.
- 35) Sorensen, E. S. (1993). Children's stress and coping: A family perspective. Stigler, J. W., Smith, S. & Mao, L. (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